

韓·中·日에 전력 공급 '슈퍼그리드 전남' 꿈꾼다

〈거대 규모 전력망〉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전남으로

〈1〉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전남이 에너지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에 집중해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부 역시 최근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수소,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에너지 수요 억제를 근간으로 슈퍼그리드(Super Grid, 거대한 규모의 전력망)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비즈니스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광주일보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전남도의 향후 대응과 전망 등을 조명한다.

**태양광·풍력·조력 등 자원 풍부
수소산업 최적화 조건도 갖춰
한전공대 연구개발·경쟁력 기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전남이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할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을 품으면서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천연가스, 몽골 풍력 및 태양광 등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수요처인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꿈꾸며 에너지산업의 전초기지를 꿈꾸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19일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산업의 비중을 30~35%로 설정하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등과 공동연구 및 조사를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석탄, 석유, 원자력 등의 사용을 감축하는 대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주목을 끈 것은 '수소'다. 정부가 앞으로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연료전지 10.1GW(기가와트) 보급하는 한편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하게 하고, 수소경제법 제정·안건준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수소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



동강대 교정... 봄비 머금고 활짝 핀 철쭉꽃
광주·전남지역에 간간히 비가 내린 23일, 광주시 북구 동강대학교 교정에서 빗물을 잔뜩 머금은 철쭉 사이로 학생들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신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일찌감치 거론된 바 있다. 전남은 그린수소 생산과 실증에 최적화된 수소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은 국내 2위의 부생수소 생산능력(33.8%)이 있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광양제철 등이 있기 때문이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이나 제철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소를 말한다. 정부가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 1곳, 2020년 2곳의 수소시범도시를 선정하기로 하자 전남도가 여수시를 1순위로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여수시 일원에 수소시범도시 선정을 위해 도내 수소차, 충전소 보급 수요 조사 등을 진행중으로 여수시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응모할 방침이다.

또 전남도는 국내 최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량(21.6%)을 자랑하며 해상 풍력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여건 속에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로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4.64GW 신규 설비를 보급하고,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연계사업을 추진중

이다. 마을기업형 에너지자립마을,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등의 조성,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이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포함돼 있다.

에너지신산업 여건을 갖춘 전남이 무엇보다 한전공대에 기대를 거는 것도 자연여건, 에너지원, 최대 전력공기업 한전, 에너지 관련 기업군 등과 함께 그 중심부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대학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구성된 에너지 관련 교수진, 박사급 연구원 등이 신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융복합을 통한 신에너지원의 창출 및 보급, 최첨단 에너지 수요·관리 시스템 개발 및 개선 등으로 전남의 에너지신산업 경쟁력을 일약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전남도 관계자는 "풍부한 자연자원과 에너지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공기업 등이 구축돼 있는 것은 전남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전력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는 기지로 부상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야 4당, 패스트 트랙 추진

한국당 강령 반발... 이언주 바른미래 탈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빼대로 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추진했다. <관련기사 3, 4면>

하지만 이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고 해도 최종 관문인 분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또 분회의 표결까지 여야 4당 의원들이 단일 대안을 유지하느냐도 변수다. 선거제 개편은 지역구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회의 표결시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패스트 트랙에 따른 후폭풍도 주목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발(發) 정계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총을 열고 만장일치로 추진 절차를 밝혔다. 평화당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의총 추진 절

차를 통과했다. 평화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과정에서 농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최대 변수였던 바른미래당의 추진은 찬반 논란 끝에 표결, 1표차로 가결됐다. 이날 의총은 고성이가 오가는 가운데 4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패스트 트랙 추진 최종 표결에 23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바른미래당 출신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당원권 정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이언주 의원은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 트랙 후폭풍이 바른미래당 정계개편을 촉발시키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의 합의에 대해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오는 27일에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선업 불황 영암·목포·해남
산업위기대응지역 2년 연장

조선업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영암·목포·해남이 2년 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영암·목포·해남을 비롯한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등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회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목포·해남·영암지역은 조선산업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5월 29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후 근로실직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기술 개발과 사업다각화 기반 구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분야에 1864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연장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웃이 무섭다" 불안한 시민들 ▶6면
한국영화 100년 - 신편람 시대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명영광 으뜸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청정지역, 맛의고장 전라남도!
여유롭게 힐링하며 느껴 보세요!!

77 창사67주년
광주일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신청기간 | (1차) '19. 3. 18. ~ / (2차) '19. 7. 1. ~
운영기간 | (1차) 4. 15. ~ 7. 14 / (2차) 8. 15. ~ 11. 14.
운영장소 | 농산어촌 체험마을·농가 30개소
신청방법 | live.jeonnam.go.kr 인터넷 신청
참가기간 | 5일 ~ 60일까지 가능

참가자격 | 전남 외 지역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참가비용 | 숙박, 농어촌 체험·교육 등 무료
* 식사, 교통비 등 생활비 자부담
주요내용 | 주민만남, 문화관광지 탐방, 귀농귀촌교육 참여, 선도·귀농 농가 견학, 일손돕기, 재능기부 등
문의전화 | 1577-1425

전라남도